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및 행동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종필*, 조성제**

The Effect of the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ng-Pil Kim*, Sung-je Ch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스트레스, 행동지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5일부터 9월 2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행동지수요인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체증상의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이용만족도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에 활용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tress and the behavioral index factor of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March 5 and September 22, 2014 among a sample of 200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ing in the residential facility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Survey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using SPSS WIN 18.0 and Amos 21.0 program, and verified at 5% significance level.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 link was found between stres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no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the behavioral index factor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y. Third, concerning the physical symptoms it was indicated that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acility bear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would provide a solid base from which policy makers can develop the polici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reduce stress in their daily life.

Key Words: Behavioral index, Intellectual disabilities, Life satisfaction. Residential facilities Stress, SPSS WIN 18.0 and Amos 21.0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3년 등록 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7.15%로 2010년 6.41%에서 지속적으로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근래 몇 십년간의 사회복지시설 확대는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 집중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고령 노인인구 및 장애인 수의 증가로 기초생활 문제의 확충에 전력하였기 때문이다[2].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 of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march 10, 2015

Revised april 1, 2015

Accepted april 10, 2015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요구 된다[3]. 이에 대한 장애인 시설종사자와 가족구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 등에도 불구하고 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과 연령 및 경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센터 종사자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 센터 종사자는 정서적으로 탈진되며,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화가 심화되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성취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4].

정신장애인 배우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결과, 약물복용을 정신장애인 스스로 규칙적으로 할수록 배우자 스트레스가 낮고 약물복용을 불규칙적으로 또는 기피할수록 배우자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조적 요인 중 정신장애인 배우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막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도 높았고, 부부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배우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전문적 개입 및 정신장애인의 약물관리 교육 강화, 다자녀가족 및 어린자녀 양육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5].

장애와 그에 따른 부가적 실체(낙인, 편견, 차별, 사회적 제약 등)들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

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초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6].

기존 선행연구는 장애인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종사자나 가족들은 스트레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일상생활 개선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지적장애인의 행동지수는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지적장애인의 이용자 만족도는 자존감, 신체증상, 행동지수, 스트레스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5일부터 9월 2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

을 이용하였으며, 산출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를 0.40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11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는 총 200부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 33부를 제거하고, 167부의 응답결과를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자의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15개 문항, 일상적 스트레스 설문 10문항, 생활행동지수는 11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5]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항과 부양자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문항은 성별, 월 소득, 종교, 연령, 학력, 홀로된 기간, 가장 오래 거주한 장소로 구성하였다. 부양자에 대한 설문문항은 경제를 책임지는 가족,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 형제자매 수, 자녀와의 연락빈도, 형제자매와의 연락빈도, 친구와의 연락빈도 등을 측정 하였다.

2.3.2 일상적 스트레스척도

조사도구는 Lazarus 와 Delongis[13]의 개발하였으며, 김정희[14]가 번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각각 ‘개인시공간부족’, ‘가족왕래부족’ 등 2개의

영역으로 9문항에 4점으로 4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아니다’에 1점, ‘약간 그렇다’에 2점, ‘상당히 그렇다’에 3점, ‘아주 많이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2.3.3 생활행동지수 척도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5]의 진단검사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생활행동지수의 하위요인은 ‘신체장애증상’, ‘체중조절’, ‘영양결핍증상’ 등의 3개의 영역으로 10문항에 5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없다’에 1점, ‘거의 드물게’에 2점, ‘때때로’에 3점, ‘상당히’에 4점, ‘대부분’에 5점을 부여하였다.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16].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0.7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시설 만족도, 불안, 자부심, 스트레스, 우울증, 신뢰성이 미치는 삶의 만족도

Table 1. Facilities Satisfaction, Anxiety,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divis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Facilities Satisfaction	7	.921
Facilities Satisfaction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Satisfaction	5	.871
	Facilities Satisfaction Environment	7	.910
	Facilities Satisfaction	19	.960
	Anxiety	10	.924
	Self Esteem	10	.719
Stress	Family Stress	9	.832
	Economic issues stressed	5	.793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3	.708
	Stress	20	.724
	Depression	15	.792
	Life Satisfaction	20	.788

2.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SPSS WIN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자’ 41.3%, ‘여자’는 58.7%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기초생활수급가정’ 78.9%, ‘월200만원 미만’ 10.20%, ‘월400만원 미만’ 9.60%, ‘월400이상’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시설 입소 기간은 ‘5-10년 미만’ 37.1%, ‘10-15년 미만’ 25.1%, ‘15년 이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연락 빈도는 ‘연락안하는 경우’가 54.5%, ‘집안행사’ 16.2%, ‘월 1회’ 15.6%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Percent
Sex	Man	69	41.3%
	Woman	98	58.7%
	Total	167	100.0%
Household Income of Month	basic living security received family	131	78.9%
	Less than 1 million won	14	8.4%
	Less than 100 to 200 million won	3	1.8%
	Less than 200 to 300 million won	8	4.8%
	Less than 300 to 400 million won	8	4.8%
	Less than 400 million won	2	1.2%
Enter period for disability facilities	Total	166	100.0%
	intra-annual	8	4.8%
	Less than A year to five years	25	15.0%
	Less than 5 to 10 years	62	37.1%
	Less than 10 to 15 years	42	25.1%
Frequency of contact with family	More than 15 years	30	18.0%
	Total	167	100.0%
	Weekly	14	8.4%
	Monthly	26	15.6%
	twice a month	9	5.4%
Frequency of contact with family	Family event	27	16.2%
	No frequency	91	54.5%

3.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계수 추정을 위하여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가설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로 정리하였다. NFI는 .923, CFI는 .935, GFI는 .941, AGFI는 .902, TLI는 .900, RMSEA는 .045로서 대체로 적합도는 우수하게 조사되었다.

3.3 가설1.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스트레스가 미치는 삶의 만족도

Table 3. Stress life satisfaction

channel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Life satisfaction Factor	[- Stress Factor	-.087	-.071	.053	-1.344	.179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beta = -.087, p > .05$)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3 가설2. 행동지수는 이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 활동의 만족도
Table 4. Action Satisfaction Index

channel		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Utilization satisfaction Factors	Behavioral index Factors	-.144	-.230	.159	-1.446	.148

행동지수 요인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beta = -.144, p > .05$)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행동지수요인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4 가설3. 이용자 만족도는 자존감, 신체 증상, 행동지수, 스트레스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표 5. 사용자의 만족도 지수와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User satisfaction index behavior, stress factors mediating effect on th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Behavioral index Factors	Stress Factor	Utilization satisfaction Factors	Life satisfaction Factor
Standardized Total Effects				
Utilization satisfaction Factors	-.144	.050	.000	.000
Life satisfaction Factor	-.431*	-.060	.529**	.000
Standardized Direct Effects				
Utilization satisfaction Factors	-.144	.050	.000	.000
Life satisfaction Factor	-.356*	-.087	.529**	.000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Utilization satisfaction Factors	.000	.000	.000	.000
Life satisfaction Factor	-.076	.026	.000	.000

이용자 만족도가 자존감, 신체증상, 행동지수, 스트레스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에서 신체증상요인의 경우에 ($\beta = -.145, p < .05$)로 나타나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체증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존감, 행동지수,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은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도는 자존감, 신체증상, 행동지수, 스트레스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에서 신체증상의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스트레스, 행동지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beta = -.087, p > .05$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17]과 일치하다.

둘째, 행동지수요인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자녀지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행동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18]과 불일치하다. 그 이유는 장애인 시설의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와 가족방문이 드물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자 만족도가 자존감, 신체증상, 행동지수, ‘이용자 만족도는 자존감, 신체증상, 행동지수, 스트레스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에서 신체증상의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신체적 특성의 일상생활능력과 신체기능, 사회적 특성의 종교 활동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9] 것과 일치하다.

결론적으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스트레스, 행동지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신체증상의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적 장애인의 스트레스 보다 이용에 대한 생활 편의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행동지수요인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적 장애인의 이용만족도 보다 이용에 대한 생활 편의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신체증상의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체적 증상에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지적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s, 2013 Aged Welfare Facilities Statistics, www.kostat.go.kr, 2014.
 [2] G.h. Ko, Y.S. Jang, J. W. Kang, J.W. Kim, Choi S. Y. Choi, Y.E. Jung, “2009 Year of the Disabled in Korea Proceedings of welfare spending and income security system compared to OECD countries”, Ministry of Health, Social Affairs, 2011.

[2] H. S. Im, "Analysis of Causes Affe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Servic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Welfare the Aged, Vol.54, pp.237-261, 2011.
 [3] S. W. Kim, "The Impact of Job Str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orker",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4, pp. 223-246. 2013.
 [4] I. B. Son, D. K. Kim, S. T. Kim, "The Effect of Job Stress of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CIL) Employees on Burnou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3, No.2, pp.107-124, 2013.
 [5] H. S. Jeon,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of Caregivers with Spouses Having a Mental Illness-Focused on the biopsychosoci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3, pp.349-373, 2011.
 [6] G. S. Lee, "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and the Predictor Factor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5(2), pp.375~402, 2014.
 [13]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1988.
 [14] J.H. Kim, "Evaluation of stress and coping in relation to emotional experience", Korea Journal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7, No.1, pp.44-69-69, 1995.
 [15] Community Health Survey, 2011.
 [16] N. Krause, "Life Stress, Social Support, a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Vol.2, pp.349-356, 1987.

- [17] Y. S. Cho, Y. H. Kwon, "The Relationship among Attitudes towards Deaf Cultur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afness", The Journal of Children Education, Vol.11, No.1, pp.263-284, 2009.
- [18] J. H. Choi, S. J. Cho, "A Study about a Stress and index of Living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7 pp.4184-4190, 2014.
- [19] N. H. Kim, S.I. Choi, "Effects of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1, pp. 241-252, 2011.

저자약력

김 종 필(Jong-Pil · Kim) [중신회원]



- 2002년 8월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2003년 3월 ~ 현재 : 더불어사는 마을 원장
- 2005년 10월 ~ 현재 : 장애인 시설 에덴하우스 대표
사회복지, 노인심리, 장애인복지, 산학융합

<관심분야>

조 성 제(Sung-Je Cho) [중신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 융합, 문화콘텐츠, 문화 복지, 산학융합